

북한 수산업 현황 및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

김 종 화

경제·산업연구실 책임연구원
sdart@cni.re.kr

이 연구는 4.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한 비핵화 조치에 따라 남북간 교역·교류·협력이 활발해 질 것을 대비하여 수산업 부문에서의 남북한 협력방안을 충청남도 입장에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

CONTENTS

1. 필요성 및 목적
2. 북한 수산업 현황
3. 수산부문 남북교류 동향
4. 수산부문 남북교류 방안
5. 맺음말

요약

- 본 연구는 최근 4.27, 5.26, 9.18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하여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북한 수산업의 현황 및 실태를 살펴보고 남한(충남)과 북한간의 수산부문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음
- 현재 북한 수산업은 내각, 당, 군 중심으로 생산량 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, 식량증산의 차원에서 수산업 발전을 독려하고 있음
- 북한 수산업은 수산업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고, 기술수준이 낮아 발전 한계성 보유하고 있으므로, 북한의 수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충청남도에서는 김, 바지락, 해삼 산업 협력, 북한 수산물 시장 진출, 서해 해양환경 보전 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음
- 북한과의 수산부문 교류·협력은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남북한이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며, 북한 비핵화 과정에 따라 국제정세에 부합하는 현실성 있는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함
- 본 연구는 북한 수산업 현황을 파악하고, 남한(충남)과 북한간의 수산부문 교류·협력방안을 모색하였으나, 통계자료 및 정보의 제한성,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, 북한의 중앙집권식 권력체제 등으로 교류·협력사업의 한계도 갖고 있음

01 필요성 및 목적

- 2018년 4.27 판문점 선언과 5.26, 9.18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하고, 합의를 도출함
 -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2018년 6.12, 2019년 2.27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계기를 마련함
 - 4.27 판문점 선언에서는 합의를 통하여 ‘핵 없는 한반도 실현’ , ‘연내 종전 선언’ , ‘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’ , ‘이상가족 상봉’ 등을 천명함
 - 특히 지상, 해상,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면서 ‘서해 북방한계성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’ 로 밝힘
- 서해안 평화수역 조성은 그동안의 서해안 NLL(북방한계선, Northern limit line) 등에서 발생하였던 군사적 충돌을 방지시키고, 긴장을 완화시켜 남북한 어업인들이 공동 어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
 - 그 밖에도 남북한은 개성공단 재개, 공동철도조사, 산림협력 등의 경제협력 추진을 노력 중임
- 김정은 정권은 경제분야 4대 선행부문(전략, 석탄, 금속, 철도)에 앞서 수산부문을 농산 및 축산과 함께 3대 축으로 강조함¹⁾
 - 軍을 수산증산의 시범(표범)단위로 만들어 민간부문에 확산하여 수산물 생산 증대를 도모함
 - 어로어업을 우선시하여 어선 출어일수 확대, 어구 및 어선 현대화, 물고기잡이 방법 과학화 등 중점대책을 수립함
 - 부가적으로 바다양식을 고려하여 양식기술 도입 및 우량 품종 물고기 확보 등 대책을 수립함

1) 이유헌(2015), 이하 동일

- 수산물 저장 및 냉동, 가공설비, 어선 현대화, 어로방법 과학화 등을 중시함
- 최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2013년부터 수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, 현지지도 등을 통하여 수산업 진흥 및 발전을 독려함
 - 2013년 수산사업소 방문, 軍 수산부문 열성자 회의 개최
 - 2014년 신년사에서 수산업 발전을 언급하면서 ‘물고기잡이 전투 시작’ 선언
 - 2015년 노동당과 내각의 주요과업으로 수산부문 투자 증대 및 국가차원의 지원 강조
 - 2016년 수산사업소 방문 및 관계자 격려
 - 2018년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 방문, 수산사업소를 방문하고 관계자 격려

[표 1] 김정은 위원장의 수산진흥 행보

| 시 기 | 행 보 | 내 용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2013.5월 | 수산사업소 방문(5.28) | - 8월25일수산사업소 노동계급을 ‘결사옹위·결사관철의 숭고한 모범’으로 소개하고 모범사례로서 전국적인 파급효과 강조 |
| 2013.12월 | 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 회의 개최(12.21~29) | - 최룡해, 장정남, 서흥찬(보고) 등 참석 - 수산부문 일꾼들이 물고기잡이 목표를 크게 세우고 집행을 위한 총공격전을 펼쳐야 함 |
| 2014.1월 | 물고기잡이 전투 시장 | - 신년사에서 수산업 발전을 언급하면서 물고기잡이 전투 시작 선언 |
| 2015.2월 2015.4월 | 노동당과 내각의 주요과업으로 선정 | - 수산부문 투자 증대 및 국가차원의 지원 강조 |
| 2016.11월 | 수산사업소 방문 | - 5월27일수산사업소, 1월8일수산사업소, 8월25일 수산사업소 방문 및 관계자 격려 |
| 2018.6월 |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 방문 | - 최근 건설된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 방문 및 관계자 격려 |
| 2018.11월 | 수산사업소 방문 | - 5월27일수산사업소, 1월8일수산사업소, 8월25일수산사업소 방문 및 관계자 격려 |

자료 : 이유진(2015)

-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수산업 진흥 및 장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업을 제시함²⁾
 -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과학수산을 틀어쥐고 나갈 데 대한 문제
 - 생산과 경영활동의 과학화, 현대화,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선진적인 어로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항차당, 기망당 어획량을 늘일 데 대한 문제
 -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300일 이상의 출어를 보장할 데 대한 문제
 - 초급동 및 냉동시설들을 그췌히 갖추어놓을 데 대한 문제
 - 어로공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릴 데 대한 문제
 - 수산사업소별, 배별 사회주의경쟁을 힘 있게 벌릴 데 대한 문제 등

- 이와 같이 북한의 지도자는 식량산업으로 수산업 진흥 및 발전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,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을 통하여 수산업 부문의 남북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
 - 하지만 현재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제2270호를 통하여 광물 및 원유 거래 제재, 금융 제재 및 운송 봉쇄 등이 실행되고 있고, 제2371호에 따라 북한 수산물 수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남북 수산부문 교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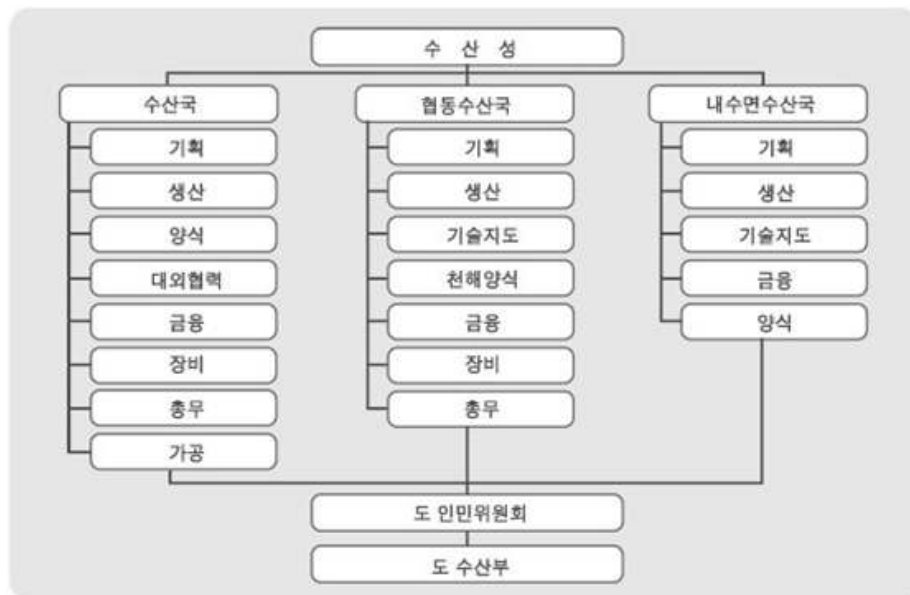
-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남북간 교역·교류·협력이 활발해질 것을 대비하여 수산부문에서의 남북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 - 특히 충청남도의 지역적 관점에서 충남 수산업의 강점을 바탕으로 북한 수산업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함
 - 또한 전통적인 어로활동뿐만 아니라 수산업의 전·후방 산업에서 파생되는 수산산업의 관점에서 북한 수산업을 조망하고, 충남 수산산업과의 교류·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

2) 이창기, 자주시보, 2016.11.20.일자.

02 북한 수산업의 현황

1. 수산정책 및 행정체계

- 북한의 수산행정체계는 행정조직인 수산성과 국영수산업사업소 조직, 수산협동조합 관리조직 3대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음³⁾
 - 수산성은 내각 산하로 전국 각 도 수산행정을 통제·관리하는 북한 수산행정의 최고 집행기관임
 - 바다를 접하고 있는 7개의 도(道)에서는 수산물관리국이 있어 지역 수산업을 관리함⁴⁾



[그림 1] 북한 수산성 조직체계

자료 : 북한정보포털 「<http://nkinfo.unikorea.go.kr>」 [원자료 : 김현용·박광범(2006)]

3) 통일부, 북한정보포털 「<http://nkinfo.unikorea.go.kr>」, 이하 동일

4) 북한에서 바다를 접하고 있는 도는 강원도, 함경북도, 함경남도, 평안북도, 평안남도, 황해남도, 남포직할시

- 북한 수산정책의 기본방향은 “바다로부터 인민의 식량을 공급받고, 한편으로는 외화벌이의 중요한 산업으로 이를 장려하며,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장의 확대, 수산의 과학화, 생산의 극대화를 추진한다” 라고 설정함

[표 2] 김정은 위원장의 수산진흥 행보

| 단계 | 주요 개발계획 | 주요 수산정책 | 수산물 생산 | |
|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|---|
| | | | 목표 | 실적 |
| 1단계 (1947~1960) | 국민경제2개년계획 경제부흥발전3개년계획('54~ '56) 제1차 5개년 경제계획('57~ '61) | 수산생산활동 국유화 수산물리기구 정부 선박, 조선소, 어구생산장 신설 천해양식사업 육성 어업생산기반 강화 | 1965년 65만톤 | 12만5천톤 1957년 58만톤 1960년 69만톤 |
| 2단계 (1961~1970) | 제1차 7개년계획('61~ '70) 계획기간 3년 연장 | 어업장비 근대화 범선의 동력선 완성 원양어업 확대 정착 천해양식어업 개발 | 100~120만톤 | 84만톤 (한국 추정) |
| 3단계 (1971~1977) | 6개년계획('71~ '77) 계획기간 1년 연장 | 어로장비의 자동화·반자동화 양식어업 확대 어업기반시설 확충 원양어업선단 조업 | 160~180만톤 | 1977년 160만톤 어류 130만톤 |
| 4단계 (1978~1984) | 제2차 7개년계획('78~ '84) 사회주의 건설 10대 전망 목표('80) | 수산행정체계 및 제도 정비 어선의 대규모화·만능화 추진 어류가공시설 및 유통장비 확충 천해양식어업기술 고도화 인공종묘 생산 방류 | 1984년 358만톤 어류 270만톤 | 350만톤 (북한 발표) 어류 165만톤 (한국 추정) |
| 5단계 (1987~1993) | 제3차 7개년계획('87~ '93) 제2차 7개년계획 목표 미달 시사 | 수산업의 현대화·과학화 양식어장 적극 건설 양식다양화 원양어업 육성 각종 수산가공업 종합육성 기르는 어업 적극 육성 | 1989년 500만톤 (10대 전망 목표) 1993년 1,100만톤 (3차7개년목표) | 1989년 219만톤 (한국 추정) |
| 6단계 (2016~2020) | 경제발전 5개년전략('16~ '20) | 고깃배와 어구 현대화 기상예보·해양지휘·물고기 가공체계·전략감시체계·배 수리체계의 과학적 구축 노력절약형 물질약형 양어 도입 바다양어, 그물우리양어 전개 | | |

자료 : 북한정보포털 「<http://nkinfo.unikorea.go.kr>」 [원자료 : 김현웅·박광범(2006) 및 노동당 제7차대회 전문]

- 북한 수산업의 중요 생산기지인 수산사업소는 동해와 서해에 각기 분포되어 있으며, 민·군이 운영하고 있음
 - 주로 지역이름을 붙인 수산사업소는 민 중심이고, 낱씨이름을 붙인 수산사업소는 군이 운영함
 - 동해 : 1월8일수산사업소, 5월27일수산사업소, 8월25일수산사업소, 신포수산사업소, 원산수산사업소 등⁵⁾
 - 서해 : 룡암포수산사업소, 철산수산사업소, 정주수산사업소, 문덕수산사업소, 한천수산사업소, 남포수산사업소 등⁶⁾
- 최근 들어 취약계층에게 수산물을 공급하거나, 원양어업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수산사업소가 신설되는 등 북한 내에서 수산업의 역할 및 위상이 강화됨
 - 1월8일수산사업소는 전국 육아원, 애육원, 초·중등학교, 양로원 등에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임무로 운영됨⁷⁾
 - 5월27일수산사업소는 원양어업의 전초기지로서 수산물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운영함

[표 3] 2014~2015년 신설된 수산사업소 현황

| 사업소 명 | 목 적 | 연 혁 | 주요설비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월8일 수산사업소 | 취약계층을 위한 공급시설 | 2014.2.1. 착공 2014.4.30. 완공 및 조업시작 | - 연장길이 수백m - 1호, 2호 부두와 상가대, 방파제, 어로공 합숙소, 휴게실 등 |
| 5월27일 수산사업소 | 원양어업 전초기지 | 2015.10.10. 완공 | - 총 면적 55,140㎡ 이상 - 부두, 방파제, 냉동시설, 가공장, 합숙소 등 |

자료 : 이유진(2015)

5) 이유진(2015)

6) 이유진(2015) (원자료: 조정훈, 통일뉴스)

7) 이창기, 자주시보, 2016.11.20.일자.

2. 수산업 현황

- 북한의 해양은 동해와 서해가 완전히 분리되어 환경적 특성이 다르고, 수산물의 분포도 다른 형태를 보임⁸⁾
 - 동해안은 해저지형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대륙붕 폭이 좁고 해안선이 단조로움
 - 서해안은 조석간만의 차가 최대 10m에 이르고, 굴곡이 심해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들이 분포함
-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은 2016년 기준 100.9만 톤으로, 2004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 톤을 상회함⁹⁾
 -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은 1985년 178.1만 톤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며, 생산량 변동이 심함
 - 최근 들어 경제개발정책 차원에서 수산물 생산을 독려하고 있으며, 특히 2014년 수산물 생산량 목표를 2013년의 3배로 설정하여 생산량 증대를 독려함
 - 생산량이 개선된 2014년 북일 중간수역에서 조업하는 북한의 오징어잡이 어선이 400척으로 증가하여 생산량 증대에 기여함
 - 오징어잡이 어선 : ('11년) 15척 → ('12년) 80척 → ('13년) 110척 → ('14년) 400척

[표 4] 북한 수산물 생산량 및 증감률

(단위 : 만 톤)

| 연도 | 생산량 | 증감률 |
|------|-------|--------|
| 1985 | 178.1 | 0.0% |
| 1990 | 145.5 | -18.3% |
| 1995 | 105.2 | -27.7% |
| 2000 | 69.8 | -33.7% |
| 2005 | 90.9 | 30.2% |
| 2010 | 63.0 | -30.7% |
| 2015 | 93.1 | 47.8% |
| 2016 | 100.9 | 8.4% |

자료 : 북한정보포털 「<http://nkinfo.unikorea.go.kr>」 (원자료 : 한국은행)

8) 좌민석(2018), 이하 동일

9) 이유진(2015), 이하 동일

- 북한 수역에서 분포되는 어종은 약 650~800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, 대부분 한국과 비슷한 품종이 생산됨¹⁰⁾

– 해면어류 640여종, 패류와 해조류 100여종, 기타 수산동물 40여종 등이 생산됨

[표 5] 북한 해역별 주요 어종 및 어장

| 구분 | 동해안 | | | 서해안 | | |
|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| 어종 | 주어장 | 주어기 | 어종 | 주어장 | 주어기 |
| 어류 | 멸치 | 연근해 | 5~6월 | 조기 | 평안북도, 황해도 | 4~6월 |
| | 명태 | 함경도, 강원도 | 11~1월 | 고등어 | | 6월 |
| | 고등어 | 연근해 | 5~6월 9~10월 | 뱅어 | 평안북도, 압록강하구 | 4~6월 |
| | 청어 | 연근해 | 2~4월 | (물)가자미 | 연근해 | 5~9월 |
| | 대구 | 연근해 | 10~1월 | 민어 | 연근해 | 6~7월, 10월 |
| | 가자미 | 연근해 | 연중 | 병어 | 연근해 | 5~9월 |
| | 방어 | 함경도 이남 | 11~1월 | 갈치 | 연근해 | 9~10월 |
| | 임연수어 | 함경도, 강원도 | 9~11월 | 삼치 | 황해도 | 6~11월 |
| | 정어리 | 연근해 | 6~7월 | 송어 | | 2월, 4월, 9월 |
| | 꽂치 | 연근해 | 6~8월 | 농어 | | 6~7월 |
| 갑각류 | 꽃게 | 강원도 이남 | 5~6월 9~11월 | 새우류 | 연근해 | 9~12월 |
| | | | | 꽃게 | 연근해 | 3~5월 10~11월 |
| 패류 | 굴 | 강원도 연안 | 11~3월 | 백합 | 평안남도, 황해도 | |
| | 가리비 | 전 연안 | | 바지락 | 전 연안 | |
| | 조개류 | 전 연안 | | 꼬막 | 전 연안 | |
| 연체 동물 | 오징어 | 강원도, 함경남도 이남 | 7~8월 9~10월 | | | |
| 기타 | 미역 | 강원도, 황해북도 | | 미역 | 황해도 | |
| | 해삼 | 전 연안 | | | | |
| | 성게 | 강원도, 함경북도 | | | | |

자료 : 북한정보포털 「<http://nkinfo.unikorea.go.kr>」 (원자료 : 농림수산식품부)

10) 북한정보포털 「<http://nkinfo.unikorea.go.kr>」, 이하 동일

- 북한의 어선은 무동력과 동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, 최근 들어 약 1,500여척의 동력어선과 4,000~9,000여척의 무동력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¹¹⁾
 - 경제난으로 인하여 유류 부족과 정비불량, 부품부족, 기관고장 등으로 실제 조업이 가능한 어선 수는 400여척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됨
 - 무동력 어선 중에서는 돛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어선도 300여척 있으며, 20~80마력 수준의 중국 어선들이 북한수역 내에서 조업하다가 나포된 것으로 재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함
 - 한편, 북한에서 사용되는 주요 어구들은 80% 이상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며, 특히 어망은 90%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임

[표 6] 북한의 대표적인 동력어선 현황

(단위 : 톤, 척)

| 구분 | 어선규모 | 척수 |
|--------|-------------|-----|
| 공모선 | 10,000 | 8 |
| 냉동운반선 | 3,000~7,000 | 12 |
| 대형트롤선 | 3,750 | 11 |
| 다목적선 | 450~485 | 554 |
| 어망어선 | 270 | 16 |
| 통발어선 | 30~100 | 766 |
| 소형트롤어선 | 30~100 | 170 |

자료 : 북한정보포털 「<http://nkinfo.unikorea.go.kr>」 (원자료 : 국토통일원(1988))

- 북한의 어항은 지리적 특성 상 동해안에 집중되어 있고, 대부분 강원도에 위치함¹²⁾
 - 원산, 흥남, 신포, 홍원, 단천, 청진, 김책, 나진 등에 비교적 큰 어항이 발달되어 있으며, 원산항, 흥남항, 신포항, 청진항, 김책항은 원양어업기지로 활용됨
- 북한의 양식장은 동해안에 약 40개가 분포하고 있고, 서해안에는 규모가 큰 양식장이 약 5개 위치함¹³⁾

11) 북한정보포털 「<http://nkinfo.unikorea.go.kr>」, 이하 동일

12) 권혁준(2018), 이하 동일

13) 이유진(2015), 이하동일 [원자료: 홍성걸(2011)]

- 현재 중국의 양식기술 수준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, 양식장 시설도 노후화되어 1980년대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목표임
 - 주된 양식품목은 다시마, 섭조개, 굴 등이고, 특히 섭조개, 굴은 투자대비 생산효과가 좋아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, 현재 서해 양식장에서는 1정보에 평균 100톤 이상의 다시마를 수확하고 있음
- 북한의 양식은 주로 해조류(다시마, 미역, 김 등)이고, 패류(굴, 바지락, 가리비 등)는 일부 생산됨¹⁴⁾
- 북한의 양식기술은 낮은 수준으로 한국과 비교하여 대체로 30~60% 수준이고, 해조류를 제외한 해면양식은 수출 목적으로 생산됨¹⁵⁾
 - 단, 피조개의 치어 및 친어 관리기술은 80~120% 기술 수준으로 한국보다 높음

[표 7] 북한 양식기술 수준(남한대비)

(단위 : %)

| 구분 | 종묘생산기술 | 치어 및 친어 관리기술 | 사료 및 사양관리기술 | 어병관리기술 | 가공 이용 기술 및 양식장 시설 |
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잉어 | 60~70 | 50~60 | 30~40 | 20~30 | 30~40 |
| 송어 | 60~70 | 50~60 | 40~50 | 30~40 | 30~40 |
| 메기 | 60~70 | 40~50 | 40~50 | 30~40 | 30~40 |
| 미꾸라지 | 60~70 | 50~60 | 30~40 | 40~50 | 30~40 |
| 참게 | 60~70 | 50~60 | 30~40 | 40~50 | 30~40 |
| 피조개 | 50~60 | 80~120 | 30~40 | 20~30 | 30~40 |
| 전복 | 50~60 | 20~30 | 40~50 | 20~30 | 20~30 |
| 굴 | 40~50 | 50~60 | 50~60 | 30~40 | 20~30 |
| 해삼 | 50~60 | 50~60 | 20~30 | 20~30 | 20~30 |
| 새우 | 40~50 | 40~50 | 30~40 | 20~30 | 20~30 |

주 : 한국(남한) 기술수준을 100%로 가정했을 때 북한의 수준임

자료 : 북한정보포털 「<http://nkinfo.unikorea.go.kr>」

14) 권혁준(2018)

15) 권혁준(2018)

- 북한에서 내수면은 식량 확보 목적으로 육성되고 있으며, 양식어종은 잉어, 중국산 잉어, 무지개송어, 송어, 백련어, 열대메기 등 20여종이고, 특히 메기 양식업에 주력하고 있음¹⁶⁾
 - 메기 양식은 평양메기공장, 삼천메기공장, 5월9일메기공장 등 여러 양식장에서 실행 중임¹⁷⁾
 - 평양메기공장은 과학적으로 양식업을 운영하여 호평을 받아 온 공장이고, 산란, 부화, 사육부터 출하까지 영양가 높은 사료를 공급하고 모든 양식과정을 과학적으로 진행되고 있음¹⁸⁾
 - 열대메기는 높은 사육밀도 양식방식으로 북한에서 육성하고 있는 품종임¹⁹⁾

3. 수산물 교역 및 소비

- 현재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제2371호에 따라 북한 수산물 수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공식적으로 북한 수산물은 교역될 수 없으나, 최근 들어 북한산 수산물이 암암리에 중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황임
- 대북제재 이전에는 북한의 나진항에서 중국 훈춘으로 북한 수산물 수출이 이루어졌고, 훈춘에는 북한산 수산물을 대량 취급할 수 있는 교역센터, 수산물 가공시설, 냉동창고 설비가 완비되어 있는 상황이었음²⁰⁾
 - 수산관련 북한무역회사는 총 19개로 군(6개), 당(2개), 내각(4개)이고, 소속이 미확인된 4개가 있으며, 주로 조개류 및 수산가공품 등을 취급함
 - 훈춘의 수산물관련 시설은 2012년 말 ~ 2013년 중순에 완비되었고, 중국 연태대신식품유한회사가 약 193억 원 투자함
 - 중국 내륙에서는 북한산 대게와 바닷가재 등 10여 종의 수산물이 유통되었고, 중국 동북지역 공항에서 항공편으로 베이징 등 내륙도시로 북한산 수산물이 대량으로 운송됨
 - 또 중국은 북한산 냉동·건조한 수산물을 미국, 유럽, 일본 등으로 수출함

16) 권혁준(2018), 좌민석(2018)

17) 좌민석(2018)

18) 좌민석(2018)

19) 권혁준(2018)

20) 이유진(2015), 이하동일

- 북한은 수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생산활동이 저조하고, 가공공장의 위생상태 및 기술이 후진적임²¹⁾
 - 어항의 양륙시설이 낙후화되었고, 냉동냉장 및 제빙시설이 부족하여 수산물을 장기간 보관하기 어려운 구조임²²⁾

[표 8] 북한 주요 수산물 무역회사 현황(1)

| 회사 명 | 소속 | 주요 연혁 | 주요 취급품목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|---|
| 조선통성무역회사 | 인민군 (인민무력부 후방총국) | | 수산물 | 청진, 신포, 원산, 온천, 해주, 신의주에 수산물 수출기지 및 다수의 어선 보유 |
| 조선청운산무역회사 | 인민군 | 1997년 설립 | 수산물 | |
| 조선신흥무역회사 | 인민군 (국가보위부) | | 수산물 | |
| 조선신진무역회사 | 인민군 (인민무력부 총정치국) | | 수산물, 수산가공품 | |
| 조선비로봉무역회사 | 인민군 (인민무력부 정찰국) | 1988년 설립 | 수산물 | |
| 조선매봉무역회사 | 인민군 (인민무력부) | 1980년 설립 | 수산물 | |
| 조선광명무역총회사 (조선광명무역연합회사) | 내각 (대외경제위원회) | 1976년 설립 | 수산물 | |
| 조선남산무역회사 (남포시무역회사) | 내각 (남포시 행정경제위원회 무역관리국) | 1984년 설립 | 수산물 (대합, 어패류, 게, 새우 등) | |
| 조선송도원무역회사 | 내각 (원산시 행정경제위원회 무역관리국) | 1983년 설립 | 수산물(명태, 가자미, 청어, 정어리, 바지락, 오징어, 문어, 전복, 노랑가오리, 새우, 게, 해삼 성게, 해초 등) | |
| 조선수산선박회사 | 내각 (정무원 수산위원회) | | 주로 수산물관련 수송업무 담당 | |
| 조선대성무역총회사 (대성무역총국) | 노동당 | 1974년 설립 | 수산물 | |
| 조선릉라도무역총회사 | 노동당 (평양시당위원회) | 1973년 설립 | 수산물, 조개류 | |

21) 이윤효(2015), 권혁준(2018)

22) 권혁준(2018)

[표 8] 북한 주요 수산물 무역회사 현황(2)

| 회사 명 | 소속 | 주요 연혁 | 주요 취급품목 | 비고 |
|-------------|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조선합작수산물무역회사 | | | 수산물(해삼, 전복 등) | |
| 조선청남무역회사 | | | 수산물 | 어선 20척 등을 보유하고, 평양, 원산, 남포, 신의주 및 단둥지사 보유 |
| 조선철산무역회사 | | | 수산물 채취, 가공, 양식, 판매 | 청진, 함흥, 원산, 남포 |
| 조선서경무역회사 | | | 농산물, 수산물 | 청진, 리원, 함흥, 원산, 남포, 해주 등 동·서해 각지에 수산물 생산·가공기지 설치 |
| 조선삼방연합합작회사 | | 1992년 설립 | 명태, 꼴뚜기, 문어, 가자미, 방어 등 수산가공품 | |
| 조선대흥수산물무역회사 | | | 생산, 냉동어, 건어물 | 수산물 수출입전문회사 |

자료 : 이유진(2015) (원자료 : 박성준(2014))

- 최근 들어 김정은 정권의 친인민적 정책으로 수산업을 강조하면서 취약계층에 수산물을 공급하고, 수산물의 대중화에 주력함
 - 육아원, 애육원, 초·중등학교, 양로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산물 공급을 추진함(1월8일 수산사업소 신설)
 - 전국 규모의 물고기요리경연대회를 실시하여 수산물 대중화를 노력함(평양시, 평안남도 평성시,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개최)
 - 보통강 수산물상점('12.2),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('18.6)을 개점하여 지배계층에 대한 수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있음



[그림 2]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 모습

자료 : 최선영, 연합뉴스, 2018.06.09.일자

03

수산부문 남북교류 동향

- 수산부문 남북교류는 2000년 6.15 공동선언 이후에 시작되었으나, 사실상 현실화되기에는 장벽이 많아 추진이 어려웠음²³⁾
 - 6.15 공동선언 및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이 남측에 동해어장 일부 제공의사를 밝혔으나, 실무접촉 결렬 및 어업인간 이해관계로 무산되었음
 - 2005년 제1차 남북 수산협력 실무협에서 서해 NLL지역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정을 위한 실무협의 개최, 기술협력, 연구교류, 공동 자원조사, 우량품종 개발, 제3국 어장 진출 등 협력사업 논의 후 가서명이 성립되었음
 - 2007년 제1차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에서 북한 동해수역 입어 및 어로 협력, 수산물 가공, 양식분야 협력, 실무접촉 등 포괄적인 협력사업을 논의하였음
- 민간차원에서는 수협중앙회 및 전국어민총연합회 등을 통하여 수산부문 교류를 추진하였음²⁴⁾
 - 1998~1999년간 수협중앙회는 4차례에 걸쳐 남북한 수산물 직교역, 어업협력 투자 협력사업을 논의하였으나 담보로 무산되었음
 - 1998년 남한 전국어민총연합회와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는 동해안 어로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정보부족, 합의서 내용상 문제로 무산되었음
 - 1999년 민간기업이 서해안 남북 어로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어업인 반발로 사업승인 불허되었음
 - 이 이외에도 민간기업, 수협, 어업인단체 중심으로 북한과의 수산업 협력 중 추진하였으나, 정치적 요인 및 다양한 이해관계 등으로 무산되었음

23) 권혁준(2018), 이하 동일

24) 권혁준(2018), 이하 동일

[표 9] 수산부문 남북교류 사례

| 연도 | 협력 및 투자 | 교류 당사자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991년 | 구소련 어장 진출 | (남) 수협중앙회 (북) 민족경제협력연합회 |
| 1997년 | 풍어수산물합작회사 설립 | (남) (주)해주 (북) 조선총국 청진무역상사 |
| | 수산물 양식 생산 및 가공 | (남) 미흥식품 (북) 조선철산주식회사 |
| 1998년 | 동해상 공동어로 | (남) 전국어민총연합회 (북) 민족경제협력연합회 |
| | 라진수산물합영회사 설립 | (남) 태영수산, LG상사 |
| 1999년 | 붉은 대게잡이 | (남) 안승유통 |
| | 수산물 가공 | (남) (주)피쉬닷컴 |
| 2001년 | 북측수역 입어 | (남) 고성군 수협 |
| 2008년 | 뱀장어 양식 | (남) 대동수산 (북) 광명성총회사 |

자료 : 이유진(2015) [원자료 : 박성준(2014)]

0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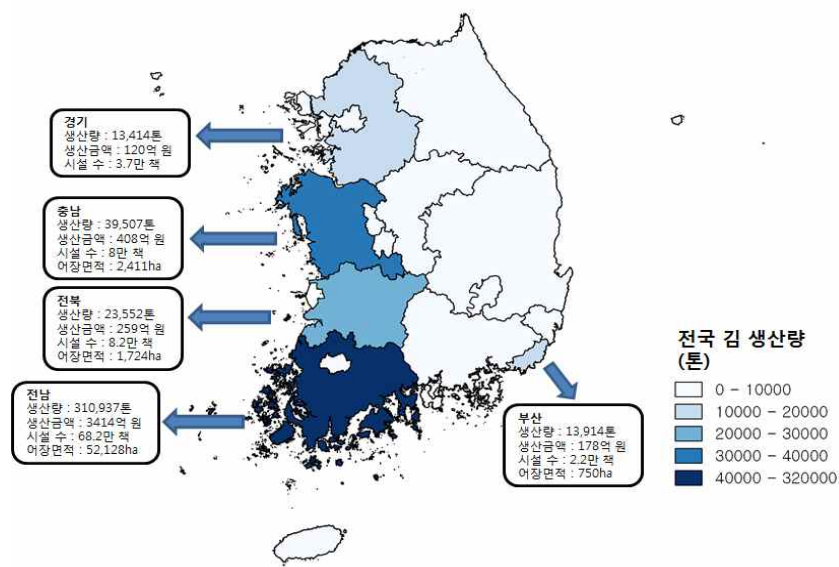
수산업 남북교류 방안

- 북한 수산업은 어선 노후화, 유류부족, 어구부족, 유통·가공시설 미비 등 수산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고, 어로·양식 기술수준도 대체로 낮아 남한과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임
 - 어선은 노후화되었고, 동력선이 부족하며, 유류가 부족하여 출어가 제한적임
 - 어구의 80% 이상은 외국에서 수입하고 노후화 되었으며 중국어선의 어구를 재사용함
 - 양식기술은 남한의 약 40~60% 수준으로 생산성이 저조한 편임
 - 저온저장고, 냉동창고, 냉동탑차 등 수산물 유통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, 가공공장도 현대화되지 못하였음
- 북한의 낙후되고 열악한 수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존 남북교류 사례를 교훈삼아 다음과 같이 전제를 설정함
 -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남한과 북한이 협력하여 상생발전 및 공동이익 창출 노력 필요
 - 기존 어장개발, 입어허가 등 교류의 틀에서 벗어나 수산업의 전·후방 산업으로 확대
 - 북한 비핵화, 대북제재 등 국제 정세의 추이를 살펴봄에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교류
 - 남·북한의 정부, 기업,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교류
 - 북한은 지자체가 없으므로, 지역단위 교류가 아닌 북한 내각 또는 당, 군과의 교류
- 이와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수산업 교류 방안을 충청남도의 입장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음
 - 북한의 ‘웅진참김’ 토종종자와 충남의 제조기술력을 합한 합작투자회사 설립·운영
 - 북한에 바지락 종묘 생산기술을 전수하고, 남한 내에서 바지락 종묘 사용·판매

- 해삼 증·양식 공동연구 및 대중국 수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
- 북한 수산물 상점에 대한 충남 수산물 납품 및 북한 수산물식당 지점 유치
- 서해안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분야에서 북한, 중국과의 협력관계 구축

1. 북한산 참김 가치보전 및 산업화

- 충남도내 수산물 중 김의 생산비중은 약 32%를 차지하여 지역 농수산물 중에서도 주력 품목으로 분류됨²⁵⁾
 - 2017년 기준 김 생산어가는 245어가이고, 어가당 소득은 344백만 원 수준임²⁶⁾
 - 충남의 김 생산량은 전남 다음으로 2위이며, 특히 서천은 단일시·군으로는 전국 최고 수준의 김 주산지임



[그림 3] 지역별 김 생산 현황

자료1 : 국가통계포털 「<http://kosis.kr/>」, 어업생산동향조사
 자료2 : KMI 수산업관측센터, 수산업관측 2015년 12월호, 2016년 12월호
 자료3 : 해양수산부 「<http://www.mof.go.kr/>」, 천해양식어업권통계
 출처 : 김종화·신우석(201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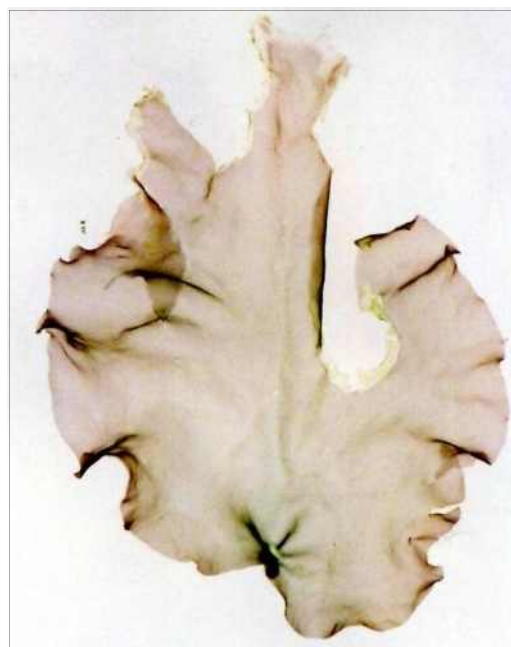
25) 김종화·신우석(2017)

26) 충청남도 해양수산국 업무자료(정례 브리핑) 활용·작성

- 또한 충남은 전국 최고의 김 가공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약 360여개소가 위치해 있으며, 이는 전국 약 700개소의 약 51%를 점유하는 수준임
 - 김 가공업체 중 마른김 업체는 57개이고, 전국 최초로 충남마른김가공수협 설립·운영함
 - 조미김 업체는 서천에 24개소, 홍성(광천) 48개소, 보령(대천) 88개소 위치함
- 북한의 황해남도 서남단에 위치해 있는 웅진군은 북한 천년기념물 134호인 ‘웅진참김’ 이 생산되는 지역임
 - 참김은 주로 남해노동자구 앞 바다에서 생산되며, 줄기가 없고 잎사귀 모양으로 생긴 것이 특징임
 -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통 토종김 종자가 없으며, 대부분 품종개량을 통하여 품질과 생산성을 높은 종자가 양식됨
 - 북한 ‘웅진참김’ 은 우리나라 토종김 종자에 가장 가까운 품종으로 보존가치가 높아, 향후 프리미엄 김 형태로 산업화 가능함



자연발생된 웅진참김



웅진참김 모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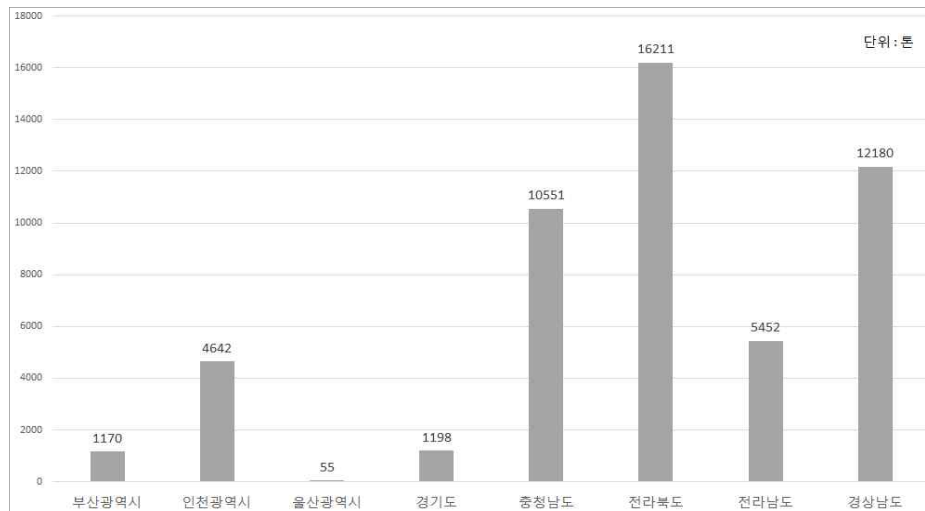
[그림 4] 황해남도 웅진참김

자료 : 네이버 블로그(평화연구소), 「<https://m.blog.naver.com>」

- 북한 ‘웅진참김’의 종자를 남한에 보급하고, 토종김 종자 가치 보전사업 추진이 가능함
 - ‘웅진참김’ 종자를 충남연안에서 시범재배하고, 남한 내 토종김 종자 보급의 거점으로 활용 가능함
 - ‘웅진참김’ 유전자 분석, 종자개량, 품질개선 등의 연구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김 양식의 연구·기술 축적이 가능함
 - 북한 내 김 양식 기술보급 및 스마트 김양식장 시범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생산량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 (※ 정부부처 협의 필요)
- 북한 ‘웅진참김’을 원료로 하여 마른김, 조미김을 생산하고, 한국 토종종자임으로 내세워 새로운 맛과 함을 가진 브랜드 제품으로 생산이 가능함
 - 북한 웅진군 일대에 ‘웅진참김’을 원초김으로 사용하는 마른김·조미김 가공공장을 남북합작투자회사로 설립·운영함으로써 산업적 기반 마련이 가능함
 - 생산된 마른김, 조미김(조미제품) 중 일부는 남한 내에서 판매하되, 대부분은 수출을 통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함으로써 북한산 김의 수출기반을 마련함
 - 북한 웅진군에서 생산된 조미김(조미제품)은 개성공단을 통하여 ‘made in Korea’ 제품으로 인정받아 세계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품질 우수성을 확립시켜야 함

2. 남북 바지락 종패산업 육성

- 충청남도는 바지락의 주산지로서 전북, 경남과 함께 바지락 생산량 높음
 - 충남의 2018년 바지락 생산량은 10,551톤으로 전국 20.5%를 점유하고 있으며, 전북 16,211톤(31.5%), 경남 12,180톤(23.7%)에 이어 전국 3위 랭크되어 있음
- 현재 바지락은 자연발생보다는 종패를 살포하여 마을어업 형태로 생산하고 있으나, 중국산 종패가 약 30%를 차지하고 있음
 - 중국산 종패는 국내산에 비하여 사이즈가 크고 굵어 외관상 소비자 선호도가 높으나, 국내산 종패는 사이즈는 작으나 맛에서 월등히 우수함
 - 바지락 종패 생산은 한정되어 있어 국내산 종패의 전략 보급이 용이하지 않아, 호남지역 등에서는 중국산 종패를 구매하여 살포하기도 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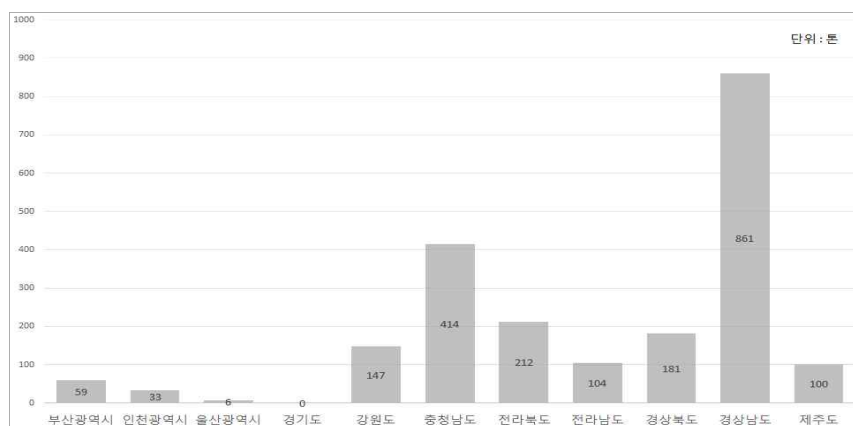
[그림 5] 지자체별 바지락 생산량(2018)

자료 : 수산정보포털, 「<https://www.fips.go.kr/>」

- 북한의 서해안은 남해안과 동일한 리아스식 해안과 갯벌이 풍부하여 바지락 등 패류의 서식환경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국산 종패 대신하여 북한산 종패를 도입하여 살포 가능함
 - 충남의 수협, 어업인단체 등과 북한 서해안 지역과의 협작을 통하여 바지락 종패 생산을 위한 전문단지 조성으로 종패 수급의 원활한 축진이 예상됨
 - 소비자와 어업인들은 품질이 동일하다면 중국산 종패보다는 북한산 종패를 선호할 수 있으므로 북한산 종패를 도입하고, 충남을 거점으로 전국으로의 판매망 구축이 가능함
 - 북한의 패류 양식기술은 30~50% 수준으로 예상되므로, 국내 패류 기술자들이 북한에 바지락 종패 생산을 위한 전문기술을 전수하여 북한 식량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가능함
 - 바지락뿐만 아니라 백합, 동죽, 굴, 키조개 등 패류 양식기술 분야에서의 종패 생산 및 증·양식 교류를 통한 경제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음

3. 해삼산업 육성 및 대중국 진출

- 현재 세계 해삼산업 및 시장이 한국산 해삼산업 육성에 적기임²⁷⁾
 - 2018년 여름 폭염으로 중국 랴오둥반도와 산둥반도 인근의 해삼양식장에서 해삼 대량폐사하고, 약 1조1천억 원대의 손실이 발생함
 - 중국 해삼 대량폐사에 따라 해삼공급 부족현상이 발생하고, 상대적으로 중국인이 선호하는 일본 아오모리, 홋카이도 지역산 돌기해삼 판매가 급증함 (※ 일본 프리미엄 건해삼(4~5cm) kg 당 990달러 거래)
 - 그러나 일본 해삼산업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재해 영향으로 방사선 오염이 지적되어, 홍콩 등의 거래처에서는 방사선 체크시트와 함께 검사비용을 요구하기도 함
 - 이에 따라, 상대적으로 한국산 돌기해삼에 대한 중화권 바이오의 관심이 증대되고, 한국산 해삼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
- 충청남도 해삼 생산량은 414톤으로 전국에서 2위에 랭크되어 있으나, 돌기가 뚜렷하고 뽕족하여 상품성이 더 좋은 최고 품질의 해삼으로 인정받고 있음
 - 충남 연안에는 냉수대가 형성되어 있어 해삼 생식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으며, 중국에서는 자연산 해삼으로 인정받고 있음
 - 전국 해삼 생산량은 2018년 2,117톤으로 경남 861톤(40.7%), 충남 414톤(19.6%), 전북 212톤(10.0%), 경북 181톤(8.5%) 순임



[그림 6] 지역별 해삼 생산량(2018)

자료 : 수산정보포털, 「<https://www.fips.go.kr/>」

27) 박종면, 현대해양, 2018.10.13.일자, 이하 동일

- 충청남도는 해양수산 신성장동력으로 ‘해삼산업 클러스터’ 조성 추진하고 있음²⁸⁾
 - 2032년까지 연 생산량 6,000톤, 매출액 5,000억 원을 목표로 지역특화산업으로의 발전을 지원할 계획임
 - 보령시와 태안군을 ‘충남 해삼특구’로 지정하고 종자 육성, 양식, 가공, 유통·판매 등 원스톱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할 계획임
 - 해삼 서식지 조성을 통해 해삼종자 전문기업 육성 및 해삼양식시설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임
 - 해삼가공 거점지원센터, 해삼수출지원센터, 국립해삼연구소, 한국해삼공사 설립을 추진할 계획임
- 북한의 서해안 전 지역은 냉수대가 흐르고 있는 지역으로 해삼 생육의 최적지로 판단됨
 - 북한의 어장을 활용한 종묘생산과 해삼 증·양식 기술 협력 등을 통한 충남 해삼산업의 전진기지로 활용 가능함
 - 현재 남한에서도 종묘생산까지는 가능하나, 중간 육성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므로 북한과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하여 서해안에 적합한 해삼 증·양식 기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 - 해삼 종묘 및 중간육성 중성묘를 충남으로 유입시켜 충남에서 최종 육성하여 상품화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
- 북한과 중국 간의 지리적·역사적·정치적인 관계를 활용한 대중국 수출채널 확보가 가능함
 - 북한과 중국은 전통적인 혈맹으로, 현재 북한의 대외수출 시장은 중국으로 한정되어 있어 중국과의 무역채널 가동이 가능함
 - 충남에서 생산된 해삼을 북한의 해삼 수출·유통채널을 통하여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유통채널 구축이 가능함
 - 북한 해삼 가공업체에 충남산 생해삼 또는 저차가공 해삼을 납품하여 남북 간 해삼 유통의 판매 채널 구축이 가능함

28) 강태우, 한국경제, 2019.04.15.일자.

4. 북한 수산물 상점 · 식당 진출

- 현재 북한에는 보통강수산물상점과 대동강수산물식당 등 지배계층을 위한 수산물 소비처가 있으며, 향후 양 점포를 활용한 충남산 수산물의 판매 촉진을 시도해 볼 수 있음
 - 보통강수산물상점과 대동강수산물식당이 위치해 있는 지역은 105층짜리 류경호텔과 류경상점, 라원백화점 등 초고가 브랜드 명품이 즐비한 북한 내 최고 부유한 변화가로서 소비층이 형성되어 있음
 - 북한의 부유층은 소비에 인색하지 않으며, 품질좋은 명품 브랜드 선호하므로 충남산 수산물의 명품화를 통한 북한 소비층 공략이 가능함
- 북한의 보통강수산물상점에 충남산 수산물 가공품 등을 납품하여 북한내 수요자 확보가 가능할 것임
 - 북한 부유층을 겨냥한 견해삼, 견어물 세트 등 수산가공품을 보통강수산물상점을 비롯한 유명 상점 및 백화점 등에 납품하여 명품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 가능함
 - 수산물뿐만 아니라 인삼, 구기자 등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 농수산물을 함께 납품함으로써 충남 농수산물의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이 가능함
 - 초기단계는 장기간 신선도가 유지되는 가공품 중심으로 추진하고, 향후 소비층 확대에 따라 신선 수산물로 확대를 검토해야 함²⁹⁾
- 북한 대동강수산물식당의 남한 지점을 유치할 필요 있음
 -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, 우리 측 수행단이 방문하게 되어 남한 내에서도 잘 알려진 대동강수산물식당의 남한 지점을 충남 천안 등으로 유치하고, 해당 식당에서 소비되는 수산물을 충남산으로 조달함으로써 지역 수산물의 대외홍보 및 소비촉진을 강화시킬 수 있음
 - 단, 남북한간 상당한 관계 개선이 있는 후에나 가능하며, 대동강수산물식당 지점이 개설된다고 해도 북한 측은 대도시권인 서울, 인천, 경기 등 수도권 선호가 예상됨

29) 농업분야에서는 딸기, 메론, 수박, 포도, 사과 등의 신선 농산물 납품 · 판매 가능

5.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보전활동

- 황해광역해양생태계(YSLME)은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전사업임³⁰⁾
 - 황해광역해양생태계 사업은 지구환경기금(GEF)과 유엔개발계획(UNDP)의 광역해양생태계 보전 사업의 일종으로 황해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정책당국자,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이 협력하는 사업임
 - 황해가 반폐쇄성 해역으로 한국과 중국의 해양이용·개발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황해의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정한 해역과 관련된 이해당사국들이 참여하는 광역해양생태계 (Large Marine Ecosystem) 관리모델임
 - 황해광역해양생태계 사업은 전 세계 66개 광역해양생태계 사업 중에서도 우수한 사례로서 평가 받고 있음
- 현재 황해광역해양생태계(YSLME) 제2기 사업이 추진 중이며, 1기에서 수립된 전략사업 이행 중임³¹⁾
 - 지속가능한 양식기술 개발, 해양보호구역 관련 정보 공유 및 평가, 해양쓰레기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,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재해 대응계획 수립 등
- 황해는 한국(남한),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함께 이용하는 해역이나 현재 북한은 참여하고 있지 않음
 - 황해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는 한국(남한),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해당되나, 현재 북한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 보다 효과적인 사업성과를 거두기 어려움
 - 한국(남한)과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함께 참여하여 황해의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함
 - 충남과 같은 서해안 지자체는 북한의 서해안에 위치한 지역(道)과의 지속적인 교류·협력을 통하여 YSLME 동참을 호소하고, 지역차원의 관련정보 교환 및 제공 등이 필요함
 - 남북한, 중국과의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보전 노력으로 깨끗하고 풍요로운 황해만들기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

30) 해양수산부, 보도자료, 2017.07.10.일자, 이하 동일

31) 해양수산부, 보도자료, 2017.07.10.일자, 이하 동일

05 맺음말

- 본 연구는 최근 4.27, 5.26, 9.18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하여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북한 수산업의 현황 및 실태를 살펴보고 남한(충남)과 북한과의 수산부문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음
 - 특히 충청남도의 입장에서 북한 수산업과의 협력분야를 찾아보고, 전통적인 어로활동뿐만 아니라 수산업 전·후방 산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류·협력 사업을 발굴하였음
 - 하지만 최근 북한 비핵화 협상이 답보상태에 있어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제2270호, 제2371호 등이 해제되지 못할 경우 남북 간 수산부문 협력이 불가능하므로, 향후 대북제재가 해제될 것을 전제로 우선 가능한 사업부터 제시하였음
- 현재 북한 수산업은 내각, 당, 군 중심으로 생산량 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, 식량증산의 차원에서 수산업 발전을 독려하고 있음
 - 김정은 위원장의 수산사업소 방문 및 노동당·내각의 주요 과업 선정
 - 경제개발 5개년전략에서 어선 및 어구 현대화, 양식어업 개발 등 수산업 현대화·과학화 천명
 - 식량증산, 취약계층 공급, 원양어업 육성 등을 위한 軍이 운영하는 수산사업소 신설
- 북한 수산업은 수산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고, 기술수준이 낮아 발전의 한계성을 갖고 있음
 - 어선은 노후화되었고, 동력선이 부족하며, 유류가 부족하여 출어가 제한적임
 - 어구의 80% 이상은 외국에서 수입하고 노후화 되었으며, 중국어선의 어구를 재사용하고 있음
 - 양식기술은 남한의 약 40~60% 수준으로 생산성이 저조한 편임
 - 저온저장고, 냉동창고, 냉동탑차 등 수산물 유통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, 가공공장도 현대화

되지 못하였음

- 북한의 낙후되고 열악한 수산업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충청남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교류·협력 사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
 - 북한의 ‘웅진참김’ 토종종자와 충남의 제조기술력을 합친 합작투자회사 설립·운영
 - 북한에 바지락 종묘 생산기술을 전수하고, 남한 내에서 바지락 종묘 사용·판매
 - 해삼 증·양식 공동연구 및 대중국 수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
 - 북한 수산물 상점에 대한 충남 수산물 납품 및 북한 수산물식당 지점 유치
 - 서해안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분야에서 북한, 중국과의 협력관계 구축
- 북한과의 수산부문 교류·협력은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남북한이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며, 북한 비핵화 과정에 따라 국제정세에 부합하는 현실성 있는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함
 - 남북한의 교류·협력 사업은 상호간 신뢰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, 사업 추진 상 중단 및 무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함
- 본 연구는 북한 수산업 현황을 파악하고, 남한(충남)과 북한간의 수산부문 교류·협력방안을 모색하였으나,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으며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김
 - 북한 수산업에 대한 제한된 정보로 인하여 통계자료, 문헌자료 등의 최신자료 열람·사용이 불가능하였음
 - 현재 남북한의 관계는 UN을 비롯한 미국, 중국 등 주변국들의 영향에 따라 상황에 변화될 수 있으나, 큰 불확실성으로 이점을 간과하였음
 - 북한은 중앙집권식 통치체제로 각 道의 자치권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, 교류사업 발굴에 제한적임

참 고 자 료

- 김중화·신우석(2017), ‘충남 김 산업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’, 전략연구 2017-06, 충남연구원.
- 국토통일원(1988), 북한의 어로실태조사, INFCFISH INTERNATIONAL.
- 권혁준(2018), ‘남북 수산협력으로 경북 동해안시대를 열자’, 대경 CEO BRIEFING, 대구경북연구원.
- 김현용·박광범(2006), ‘남북한 수산협력사업의 중장기 추진방안’, 수협경제연구원.
- 박성준(2014), ‘남북 수산협력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’, 2014 남북 수산협력 세미나 자료집.
- 이유진(2015), ‘최근 북한의 수산업 동향과 정책방향 연구’, 북한이슈, KDB산업은행.
- 좌민석(2018), ‘북한 수산업의 실태와 제주·북한 수산분야 협력방안’, JRI정책이슈브리프 Vol. 295, 제주연구원.
- 홍성걸(2011), ‘북한의 수산업 현황과 남북협력 과제’, Vol.14, No.1(통권 제27호), STRATEGY 21, KMI 수산업관측센터, 수산관측 2015년 12월호, 2016년 12월호.
- 강태우, 「충남도 ‘해삼산업 클러스터’ 조성, 보령·태안 해삼특구 지정키로」, 한국경제, 2019.04.15.일자.
- 박종면, 「사라진 해삼섬」, 현대해양, 2018.10.13.일자.
- 이창기, 「김정은 위원장 3일만에 다시 수산사업소 현지지도」, 자주시보, 2016.11.20.일자.
- 조정훈, 「北 수산성 당국자 “머지않아 식탁에 바다향기 넘칠 것”」, 통일뉴스, 2015.06.23.일자.
- 최선영, 「북미회담 앞둔 김정은, 새 대동강수산물식당 시찰, 경제쟁기기」, 연합뉴스, 2018.06.09.일자.
- 해양수산부, 「황해생태계 보전을 위해 한국과 중국이 손을 잡다; 황해광역해양생태계(YSLME) 제2기 사업 본격 착수」, 보도자료, 2017.07.10.일자.
- 국가통계포털 「<http://kosis.kr/>」
- 네이버 블로그(평화연구소), 「<https://m.blog.naver.com>」
- 북한정보포털 「<http://nkinfo.unikorea.go.kr>」
- 수산정보포털, 「<https://www.fips.go.kr/>」
- 해양수산부 「<http://www.mof.go.kr/>」, 천해양식어업권통계